2019학년도 3월 학력평가 대비 피램 랜덤모의고사
국어 영역 정답표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1	①	2	14	①	2	27	③	2	40	②	3
2	③	2	15	③	3	28	④	2	41	①	2
3	④	2	16	④	2	29	③	2	42	②	2
4	③	2	17	④	3	30	③	2	43	④	2
5	①	3	18	①	2	31	①	2	44	④	2
6	③	2	19	⑤	2	32	③	2	45	⑤	3
7	⑤	2	20	②	2	33	①	3			
8	②	2	21	①	2	34	④	2			
9	④	2	22	②	2	35	②	2	①	9	
10	③	3	23	②	3	36	③	2	②	8	
11	④	2	24	④	2	37	⑤	2	③	10	
12	①	2	25	④	3	38	⑤	2	④	12	
13	④	2	26	②	2	39	⑤	3	⑤	6	

* 화작문 해설지는 교육청 해설지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또한 LEET 문제의 경우 지문에서 지나치게 어려운 문장 및 어휘를 교체하고, 너무 높은 수준의 추론을 요구하는 선지는 수능 수준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봐주시고, 질문은 쪽지나 댓글을 통해 남겨주세요 :)
응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월 학평 뿐 아니라 수능까지 대박납시다!

2019학년도 3월 학력평가 대비 피램 랜덤모의고사
국어 영역 해설지

[1~3] 고3 1407 [1~3]

1. [출제의도] 토론 참가자들의 공통 인식 파악하기

이 토론은 유연근무제 확대 시행에 대한 찬반 토론이다. '찬성 측'은 유연근무제를 통해 실업 문제 및 임시·일용직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여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 측'은 유연근무제가 시행되면 정규직을 비정규직 일자리로 바꿈으로써 안정된 일자리에 대한 불안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입장은 다르지만 결국 양측 모두 안정된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2. [출제의도] 토론 전략 파악하기

'찬성 측'은 외국의 사례와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며 유연근무제를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경험을 들어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④ 여성들이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가 미비하여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현실의 문제점을 강조하고 있다. ⑤ '찬성 측'이 주장한 유연근무제의 긍정적 효과가 오히려 고용의 질을 나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3. [출제의도] 자료 활용의 적절성 파악하기

〈보기〉의 자료는 시간제근무자의 대부분이 임시·일용직 근로자임을 보여준다. 결국 유연근무제가 임시·일용직 근로자를 양산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하는 '반대 측'에서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4~5] 고3 1703 [4~5]

4. [출제의도] 발표를 듣고 반영된 계획을 파악한다.

발표자가 연구 논문을 통해 제시한 내용은 유기성 폐수 속의 미생물들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전기 에너지 양이 그 폐수를 처리하는 데 드는 에너지 양보다 9배나 많을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미생물 연료 전지를 활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많이 생산해 낼 수 있다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자료이다. 미생물 연료 전지를 활용하여 선진국들이 경제적으로 효과를 얻었다는 내용은 발표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오답풀이] ① 발표 앞부분에 폐수 속의 미생물들을 촬영하여 확대한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② 환경 공학 용어 사전에서 '유기성 폐수'라는 용어의 의미에 대해 찾아 제시하고 있다. ④ 미생물 연료 전지에서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원리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화면을 통해 그 구조가 드러난 시각 자료를 제시하며 설명하고 있다. ⑤ ○○○ 교수의 인터뷰 기사를 통해 미생물 연료 전지의 연구 현황과 차세대 에너지로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5. [출제의도] 듣기 전략을 파악한다.

㉠에서 학생은 발표를 들으며 미생물 연료 전지에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방법에 대해 알게 된 객관적인 사실을 정리하였다. 정리한 내용이 사실에 들어맞는지를 확인하여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아 정리하지 않았다.

[오답풀이] ② 학생은 발표를 듣기 전에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재생 에너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에서 정리한 내용을 통해 이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정보를 들으며 정리했음을 파악할 수 있다. ③ ㉢에서 학생은 발표를 들은 후에 발표에 활용된 자료의 출처를 찾아보겠다고 하였으며, 이는 정보의 출처가 믿을 만한지 신뢰성을 중심으로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에서 학생은 자신이 해야 하는 과학 실험 동아리의 보고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생물 연료 전지 실험을 주제로 활용하려 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⑤ ㉤에서 학생은 축산 폐기물 처리에서 난방 연료를 추출한다는 내용을 읽어서 알고 있던 배경 지식과 발표 내용을 관련지어 발표를 들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6~8] 고3 1504 [6~8]

6. [출제의도] 초고를 읽고 글쓰기 전략 파악하기

초고에서 다루고 있는 대상은 '감정노동자'인데, 감정노동자의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대조의 방법을 활용하지 않았다.

① 첫째 단락에서 ' 우리나라 감정노동자들이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 있다'는 뉴스의 내용을 인용함으로써 문제 상황의 심각성을 제시하고 있다. ② 둘째 단락에서 감정노동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는 원인을 소비자, 기업, 정부 측면으로 분석하였으며, 셋째 단락에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각각 소비자, 기업, 정부 측면으로 제시하고 있다. ④ 첫째 단락에서 '감정노동자는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고객을 응대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감정노동자'라는 생소한 개념을 정의하고, 이들의 예로 '판매나 상담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예를 들고 있다. ⑤ 넷째 단락에서 '특히 이는 청소년들이 앞으로 겪을 수 있는 문제이다.', '사회구성원들이 관심을 갖

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예상 독자인 청소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여 감정노동자에 대한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7. [출제의도] 자료를 활용하여 초고 수정하기

(다)의 근로기준법의 개정 내용은 '고객의 폭언과 폭행, 인격 무시 등에 대한 처벌 기준'이고, (나)의 직원들의 업무 능력 평가 기준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자체 기준'이므로 '근로기준법의 개정 내용을 바탕으로 감정노동자들의 업무 능력을 평가'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가)-1은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성 질병 발생 비율이 일반직장인보다 3배 이상 높게 나온 통계 자료이므로 '감정노동자들이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의 구체적인 근거'로 적절하다. ② (가)-2는 감정노동자의 고객 응대 시 스트레스 요인으로 '무시·폭언'이 40.1%를 차지한다는 자료이고, (나)는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폭언과 무리한 요구를 하는 고객에 대한 응대 매뉴얼을 만들어 소비자들의 부당한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인터뷰이다. 그런데 초고의 둘째 단락에는 감정노동자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사례가 많다고만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가)-2와 인터뷰의 내용을 통해 고객의 폭언으로도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감정노동자에 대한 고객들의 폭언도 감정노동자가 겪는 어려움의 원인임을 둘째 단락에 추가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나)에는 '자율 헬스클럽, 정신 건강 상담실'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줄였다고 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감정노동자의 근무 여건 개선의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④ (다)의 '고객의 폭언과 폭행, 인격 무시 등에 대한 처벌 기준' 마련은 근로기준법의 개정 방향이므로 (다)를 활용하여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내용을 구체화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8. [출제의도] 고쳐쓰기의 적절성 파악하기

㉡은 편의점 직원이 손님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는 내용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앞 문장과 순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삭제해야 한다.

① ㉠ '몇일'은 어문 규범에 맞지 않게 쓴 것이므로 '며칠'로 고쳐야 한다. ③ ㉢의 '웃음'과 '말'에 호응하는 서술어가 각각 필요하므로 '밝은 웃음을 짓고 친절한 말을 건네는'으로 바꿔야 한다. ④ ㉣은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만을 전문가로' 생각하는 주체가 '우리는'이므로 피동형인 '생각되지만'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생각하지만'으로 고쳐야한다. ⑤ ㉤은 감정노동자가 전문가인 이유가 제시된 문장과 감정노동자를 전문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문장을 연결해야 하므로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그러므로'로 바꿔야 한다.

[9~10] 고3 1407 [7~8]

9. [출제의도] 자료 활용의 적절성 파악하기

(나)-2의 자료에서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을 이끌어 낼 수는 있으나 '탄소 포인트 제도 활성화 대책 수립'은 개인이 아닌 사회 측면의 해결 방안이므로 ㉣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0. [출제의도] 조건에 맞게 글쓰기

자가용 사용을 줄이는 것은 (나)-2에서 찾을 수 있는 개인의 노력에 해당한다. '우리들의 영원한 쉼터인 지구'는 비유적 표현이며, 설의적 표현으로 끝맺고 있으므로 〈조건〉에 모두 부합한다.

① 비유적 표현이 쓰이지 않았다. ② (나)-2를 고려한 개인의 노력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설의적 표현이 쓰이지 않았다. ⑤ (나)-2를 고려한 개인의 노력이 나타나 있지 않다.

[11~12] 고3 1704 [14~15]

11.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높임법 이해하기

㉣은 서술의 객체인 '聖宗(성종)'을 높이기 위해 사용된 특수한 어휘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에는 객체를 높이기 위해 현대 국어에서 사용하지 않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에는 문장의 주어인 '聖孫(성손)'을 높이기 위해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었고, 현대 국어에서도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 주체 높임이 실현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③ ㉢에는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 선어말 어미 '-이-'가 사용되었고, 현대 국어에서는 종결 표현에 의해 상대 높임이 실현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⑤ ㉤에는 동작의 주체와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 각각 선어말 어미 '-시-'와 '-이-'가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다.

12. [출제의도] 현대 국어의 높임법 이해하기

'아버지는 허리가 아프셔서 한영이가 아버지 대신 할아버지를 뵙고 왔습니다.'에서는 '아프셔서'의 '-시-'를 통해 높여야 할 대상의 신체 일부분, 즉 '허리'를 높이는 간접 높임이 실현되었다. 또 '왔습니다'에서는 상대를 높이기 위해 '-습니다'를 사용했다. 그리고 '뵙고'는 객체를 높이기 위한 특수한 어휘이므로 객체 높임이 실현되었다.

13. 고3 1610 [13]

13. [출제의도] 문장의 짜임을 파악한다.

ㄷ의 안긴문장의 주어는 '동생이'이고 안은문장의 주어는 '오빠가'이므로 ㄷ의 안긴문장의 주어는 안은문장의 주어와 다르다. 그러나 ㅁ의 안긴문장과 안은문장의 주어는 모두 '누나가'라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ㄱ의 안긴문장은 안은문장에서 주어로 쓰이고 있고, ㄴ의 안긴문장은 안은문장에서 관형어로 쓰이고 있다. ② ㄴ과 ㄷ의 안긴문장은 각각의 안은문장에서 둘 다 관형어로 쓰이고 있다. ③ ㄷ의 안긴문장은 안긴문장 속에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으나, ㄴ의 안긴문장은 안긴문장 속에 필수 성분이 생략되지 않았다. ⑤ ㄹ의 안긴문장은 안은문장에서 목적어로 쓰이고 있고, ㅁ의 안긴문장은 안은문장에서 부사어로 쓰이고 있다.

14. 고3 1603 [15]

14. [출제의도] 문장의 문법적인 정확성을 파악한다.

'모름지기'는 '~ 해야 한다'와 호응하므로, ①은 '고등학생이라면 모름지기 그 정도는 다 할 줄 알아야 한다.' 정도로 수정되어야 바른 문장이 된다. 그러나 성분 간의 호응 문제는 〈보기〉에서 제시한 '문법적으로 바르지 않은 문장 유형'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②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와 같이 수정할 수 있는 문장으로, '연결어미가 의미에 맞게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③은 '그 시설은 지금 민간에 위탁 운영되고 있다.'와 같이 수정할 수 있는 문장으로 〈보기〉의 '피동 표현이 중복되어 과도한 피동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 ④는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텔레비전을 보거나 라디오를 듣는다.'와 같이 수정할 수 있는 문장으로, '목적어에 대응하는 서술어가 잘못 생략된 경우'에 해당한다. ⑤는 '어머니'에게 '외할머니'가 높임의 대상이므로, 서술어 '드린'에 맞추어 높임의 격 조사 '께'를 써야 한다는 점에서 '높임 표현이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15. 고3 1603 [11]

15. [출제의도] 음운 변동과 표기법을 파악한다.

'낫다'는 활용할 때 '낫다[낟따], 나아[나아]'와 같이 음운의 교체와 탈락 현상이 일어난다. 이에 비해 '낳다'는 '낳다[나타], 낳아[나아]'와 같이 음운의 축약과 탈락 현상이 일어난다. 따라서 '낫다'와 '낳다'가 활용할 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탈락'이 된다. 그리고 활용의 유형을 보자면, 같은 'ㅅ' 받침을 가진 '웃다'는 '웃고, 웃지, 웃어서, 웃으니'와 같이 어간과 어미가 규칙적인 데 반해, '낫다'는 '낫고, 낫지, 나아서, 나으니'와 같이 어간의 'ㅅ'이 탈락하므로 불규칙 활용을 한다. 따라서 '낫다'는 활용할 때 일어나는 음운 탈락이 표기에 반영되는 단어이다. 한편, '낳다'는 '낳고, 낳지, 낳아서, 낳으니'와 같이 규칙 활용을 하는 단어로, 어간의 형태가 변화하지 않는다. 따라서 '낳다'는 활용할 때 일어나는 음운 탈락이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 단어이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가)에는 '탈락'이, (나)에는 불규칙 활용이면서 표기에 반영됨을 나타내는 기호 ©가, (다)에는 규칙 활용이면서 표기에 반영되지 않음을 나타내는 기호 Ⓑ가 들어가게 되어 정답은 ③이 된다.

[16~19] 2018 LEET 언어이해 [33~35] 변형

16. ④

① 혁명기의 입법자는 유언의 자유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결국 피상속인의 자유분을 줄여 '유류분' 이라는 개념을 만드는데 일조했죠. 통시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지문의 흐름을 정확하게 잡으며 읽었다면 조금 어렵더라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④ 우리 민법에 의하면 최우선 순위인 상속권자를 유류분권자로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의하면 같은 1순위인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으면 3순위인 형제자매는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17. ④ (선지 변형)

④ 쫄지만 않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2006년 프랑스 민법전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생전 재산 처분의 자유가 증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유분이 늘어났다고 했죠. 피상속인이 죽기 전에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굴릴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이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이해관계를 형성한 제삼자는 상속인들의 눈치를 덜 봐도 되겠

죠. 어차피 자기와 거래한 사람은 피상속인이고, 그의 자유에 의해 처분한 재산이니 상속인들이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⑤ 4번 선지와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법원의 판례도 피상속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니 제삼자가 상속인들 눈치를 덜 봐도 되겠죠.

18. ①

ㄱ. '1804년 나폴레옹 민법전'에 의하면 상속을 포기한 자녀는 유류분권자에서는 제외되지만 유류분 계산 시 피상속인의 자녀 수에는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ㄴ. '1804년 나폴레옹 민법전'에 의하면 A의 형제인 D는 유류분권이 없습니다.

ㄷ. '2006년 프랑스 민법전'에 의하면 상속을 포기한 자녀는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되어 자유분이 증가하도록 했습니다.

ㄹ. 우리 현행 민법은 자식과 같은 직계비속은 1순위 유류분권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장남과 차남의 차이를 둔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19. ⑤ (창작 문제)

⑤ 확산 : 흩어져 널리 퍼짐
만연: 전염병이나 나쁜 현상이 널리 퍼짐

[20~23] 고3 1610 [31~34]

20. ②
-> 지문이 정말 어렵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도, 인물 관계 파악도 쉽지 않죠. 이런 지문이 나올 때는 문제가 쉬울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소설의 기본적인 포인트들만 파악해주시면 됩니다.

① '여차장'은 버스가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운전수가 관심을 가질 뿐이죠.

② '이 씨'가 껌을 나누어 주는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씨'는 옆의 '김 씨', 뒤의 '박 씨', 그리고 '박 씨' 옆의 '여자'에게 껌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2번 선지가 정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세한 내용일치는 최근 문학에서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하고 있으니 체크해둡시다.

③ 군하리에 가는 이유를 묻는 사람은 '여자'입니다. '박 씨'가 대답을 하고 있고요. 이 지문은 서술 주체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어떤 대사를 누가 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운전사'는 미안한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⑤ '박 씨'가 자신의 집에 '김 씨'와 '이 씨'가 하숙한다고 했습니다. 역시 서술의 주체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21. ①
-> ㉠은 '김 씨'가 장님 상상을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쉽게 허용할 수 있겠네요.

22. ② (선지 변형)

① 대화를 나누는 인물을 계속해서 돌아보지 않다가 비로소 돌아봤다는 점에서 허용할 수 있습니다.

②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건 고깔모자를 쓴 '박 씨' 였습니다. 여자가 미안할 이유가 없죠.

③ 버스가 늦게 출발했다는 점, 승객들이 거기에 불만이 있다는 점에서 허용할 수 있습니다.

④ '곰'이라는 소재를 가진 농담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허용할 수 있습니다.

⑤ 허용할 수 있습니다.

22. ②

① '박 씨'를 가리키는 단서로 고깔모자, 기피자, 전직 교사 등이 제시되었으니 허용할 수 있습니다.

② 이들이 의미 있는 대화를 하려 한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서로 의미 없는 대화만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③ 무의미한 농담을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으로 연결지으면 허용할 수 있습니다.

④ 서술 대상이 계속 바뀌어 같은 상황에서 여러 사람의 말을 듣고 있으므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⑤ 집이 어디냐고 묻는 대화 중간에 갑자기 '김 씨'의 상상 이야기가 나온다는 점에서 허용할 수 있습니다.

[24~29] 고2 1709 [28~32]

24. ④

④ 사대부들이 지배층인데 지배층의 부조리를 비판한다는 건 말이 안되죠? 지문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구요.

25. ④

④ (나)의 작가는 분명 벼슬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임(임금님)과의 추억이 있을 리가 없어요. 지문에서도 추억 회상이 드러나지 않구요.

26. ②

② '이별인들 같을손가', '무얼로 님 사랑할고'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7. ③

③ 취발이를 익살스럽게 묘사하는 것도 허용하기 힘들고, (힘 쎄고 날래다는게 익살스럽지는 않죠.) 서민들 사이의 갈등 자체가 나온 적이 없으니 완전 헛소리하는 선지네요.

28. ④

④ (나)의 화자는 '부용화 옷'을 짓고 님에게 보내려 한다는 점에서, (다)의 말뚝이는 '전령'을 가지고 취발이를 쉽게 잡아온다는 점에서 허용할 수 있습니다.

29. ③ (창작 문제)

③ Ⓐ와 ③ 모두 '감정 등의 추상적인 것이 들어 있다.'의 뜻입니다.

[30~35] 고2 1709 [16~20]

30. ③

③ 지문의 화제와 구조를 꿰뚫는 선지입니다. 제대로 읽었다면 틀릴 수 없습니다.

31. ① (창작 문제)

① 전제 문제는 항상 명제의 '대우'를 생각해보자 했습니다. ⓐ의 논리 구조가 '작가의 의도가 중요하면 인위적인 처리하면 안된다.' 이므로 해당 명제의 대우인 '인위적인 처리를 하면 작가의 의도가 중요하지 않아진다.'가 정답일 것입니다. 이와 가장 비슷한 것이 1번 선지구요.

32. ③

③ 형광X선분석법을 사용하면 실험 재료를 파괴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허물어져 가는 벽화를 파괴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성분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3. ①

① ⓑ는 ⓐ~ⓓ 중에서 가장 까만 곳입니다. 투과율이 낮을수록 물체의 영상이 하얗게 보인다고 했으니 ⓑ는 투과율이 가장 높은 곳일 것입니다. 비례/증감 관계를 체크했다면 틀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34. ④

④ 형광X선분석법을 통해서 원소의 양을 알 수는 있지만, 원소의 양을 증가시켜준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35. ②

② ㉠과 ② 모두 '분류'의 뜻을 가진 어휘입니다.

[36~40] 2017 LEET 언어이해 [14~17] 변형

36. ③ (창작 문제)

③ 관점들의 장단점을 평가하며 뭐가 더 나은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37. ⑤ (선지 변형)

⑤ ㉠은 예금주들의 예상이 그대로 실현된 상황이지만, ㉡은 예금주들의 예상이 빗나가(자산 가격이 계속 오를 줄 알았는데 거품이 터져 망해버림) 금융위기가 오는 상황입니다.

38. ⑤ (선지 변형)

⑤ 회사의 자산 가치와 부채액 사이의 차이는 곧 주주의 수익이며, 이 차이가 늘어날수록 주주의 수익은 커진다고 했습니다. 주주들이 바보도 아니고 이 차이를 줄여 자신의 수익을 줄이지는 않겠죠? '주주의 수익'과 관련된 정의와 비례/증감 관계를 잡았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39. ⑤

⑤ ㉣의 핵심은 '비합리적인 예상' 때문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보기>에 나오는 모든 경제 주체들이 다 비합리적으로 낙관하고 있으므로 ㉣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다 비판할 것입니다.

40. ② (선지 변형)

② 예금 인출이 쇄도하는 상황에서 은행은 자산을 매각하여 현금 보유량을 늘린다고 했습니다. 자산 매각을 막아버리면 은행은 예금 인출을 감당할 수 없어 또다른 금융위기를 낳을 것입니다.

[41~45] 고3 1707 [28~32]

41. ①

① (가)는 '장수산', (나)는 '산'을 통해 화자가 지향하는 바(탈속의 경지, 변하지 않는 절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② (가)와 (다) 모두 공간의 이동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시간,공간 같은 화자의 '상황'은 반드시 미리 체크가 되어야 합니다.

③ (나)에는 계절적 배경이 딱히 드러나지 않고, (다)에서는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는 어휘가 있지만 그것이 어떤 특정한 대상의 상징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④ (가)~(다) 모두 점층적 표현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⑤ (가)~(다) 모두 명령형 문장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42. ②

① 나무 베는 소리가 '쩌르렁'하고 울릴 정도면 산속이 고요하다고 할 수 있고, 고요함은 세속과 반대되는 속성이라고 할 수 있으니 허용할 수 있습니다.

② ‘외로움’은 지문과 〈보기〉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반응입니다. 허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화자의 ‘반응’과 관련된 선지는 명확한 근거 없이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③ 승부에서 지고도 웃는 모습은 초연하다고 할 수 있으니 허용할 수 있습니다.

④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에 화자는 ’시름‘이 있고, ’흔들리고‘ 있으므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⑤ 4번 선지의 설명처럼 화자는 ‘흔들리는’ 와중에도 견디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보기〉에서 말한 ‘결연한 태도’와 결부지으면 허용할 수 있습니다.

43. ④

① ‘사람’은 매일 변하는데 반해 ‘산’은 항상 푸르다는 점을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 허용할 수 있습니다.

② ‘너그러’우며 ‘자랑 않’고 ‘겸허한’ 것은 인격적 속성을 부여한 것(의인법)이라고 할 수 있으니 허용할 수 있습니다.

③ ‘사랑=친화적 태도, 배움=깨우침‘이라고 생각하면 허용할 수 있습니다.

④ 화자가 저승에서는 ‘산’이 안식처가 되지 못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승에서나 저승에서나 ‘뻗쳐있다’고 했으니 허용할 수 없습니다.

⑤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는 역설적 표현이 맞고, (‘그를 보고 있지만 그가 그립다‘와 같은 표현이네요. 그리움을 강조하기 위한 어법이죠.) 산을 그리는 것을 통해 ’자연에 동화‘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44. ④

① ‘산’이 화자에게 이상적 삶의 공간은 맞지만, ‘도회’가 좋다고 하는 장면은 딱히 등장하지 않습니다.

② ‘산‘과 ’도회‘ 둘 다 시련 극복의 계기를 주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시련을 극복하는 부분 자체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③ ‘산’을 통해 배우는 태도를 통해 ‘성찰’은 허용할 수 있지만, ‘도회’가 미래를 계획하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허용할 수 없습니다.

④ ‘산’을 예찬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맞고, ‘도회’에 남기고 온 일을 ‘걱정’하고 ‘도회에 남겨 두고 온 가난한 식구들’을 꿈에서 보는 것을 통해 그리움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필도 시와 같이 화자의 ‘상황과 반응’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가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쓰여 있어 어려운 것은 맞지만, ‘상황과 반응’에 집중하며 읽었다면 답을 고를 수는 있었을 겁니다.

⑤ 생각의 변화, 생각의 견고화 모두 드러나지 않습니다. 상황과 반응을 찾았다면 쉽게 지울 수 있습니다.

45. ⑤

- (다)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처럼 수필이나 시를 읽을 때 내용이 어려우면, 〈보기〉를 먼저 보고 내용에 대한 힌트를 얻은 뒤 ‘상황과 반응’을 찾으며 독해해주면 됩니다. 이것만 지켜주면 그리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문학에서 지문이 어려우면 문제가 쉬울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풀어주세요.

① ‘동물원’과 관련된 것은 도시적 경험이라고 할 수 있으니 허용할 수 있습니다.

② ‘소년 시대의 꿈’이 소년 시절을 떠올린다는 점에서 허용할 수 있습니다.

③ 선지 그대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④ ‘가을’은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이고, ‘엽서 한 장’은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것이니 허용할 수 있습니다.

⑤ ‘파라마운트’ 회사 상표가 이국적인 삶을 상징한다는 것은 어떻게 허용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동경’이라는 ‘반응’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시와 수필은 항상 ‘상황과 반응’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주세요!